



배포일자 : 2026년 9월 23일(수)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따뜻한 한가위, 우리 동네 골목상권에 다시 웃음이 피어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보름달의 넉넉한 빛처럼 풍성한 마음과 행복이 81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한가위입니다. 하지만 명절의 풍요로움 뒤로 여전히 지속되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 가중되는 고정비 부담 속에서 홀로 시름을 견디고 계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무거운 짐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민생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버텨주시는 그 노고야말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버팀목입니다.

우리 동네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이웃의 삶과 온기가 숨 쉬는 민생경제의 뿌리입니다. 지역상권이 소멸하면 결국 지역 전체가 소멸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까운 전통시장과 동네 가게를 찾아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작은 발걸음이 우리 이웃들의 삶을 지키고 지역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반가운 단비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경영의 무거운 짐을 덜고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담아내겠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꼼꼼한 제도개선으로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석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모두에 생동감 넘치는 온기와 웃음이 가득 차 오르는 풍요로운 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족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6. 9. 23.(수)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오세희]